



# 한목소리를 내는 단합된 생산자조직과 계란생산자를 위한 생산자들에 의한 자조금 필요



▲귀국 좌담회

일시: 88.1.14(목) 오후4시  
 장소: 미 문화원 회의실  
 참석자: 강희구(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시찰단장)  
 계경성(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남두희(본회 편집부장)  
 박중근(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이건표(장기농장 대표)  
 임용택(서일농장 대표)  
 정창각(삼주농장 대표)  
 진행: 계경성 부장

미국 계란소비자교육 시찰단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1일간 미국 동부, 중서부 7개주를 돌며 계란생산, 유통, 소비현장을 돌아보고 계란의 소비촉진활동, 소비자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생산자단체조직과 활동상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본고는 지난 1월14일(목) 오후4시 미국문화원 회의실에서 시찰단전원이 모인 가운데 시찰단보고회 형식으로 개최된 좌담회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시찰단은 미국의 계란 생산·유통·소비실태를 시찰해 소비촉진 및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고 미국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조직과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미농무성(USDA)특별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시찰단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강회구조합장을 단장으로 정창각사장(삼주농장), 임용택 사장(서일농장), 이진표사장(장기농장), 박중근계장(농림수산부 중소기축과), 남두희부장(대한양계협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내는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계정성부장이 담당했다.

미농무성(USDA), 계란영양센터, 동북계란 생산자 박람회 참관, 슈퍼마켓, 사료공장, 계열화된 산란계농장 및 GP처리시설, 양계기구회사,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 태평양지역 양계협회(PePa), 계란가공시설 등을 시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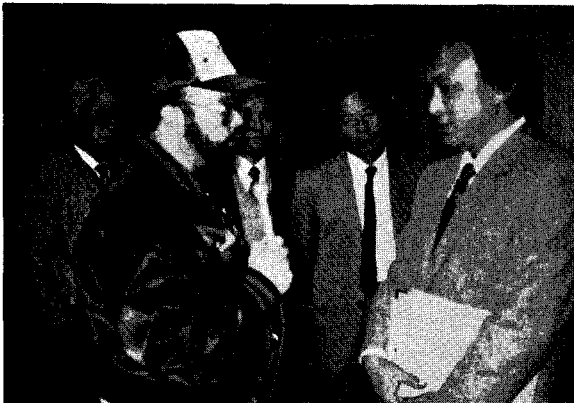
### 20만수 산란계를 1명이 관리

산란계 125만수와 종계 20만수를 사육하는 계열화 농장과 50만수 사육규모의 산란계농장을 보았는데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계사에서 자동집란된 계란은 GP센터로 콘베이어로 연결돼 생산지에서 계근 포장된 후 유통시장에 납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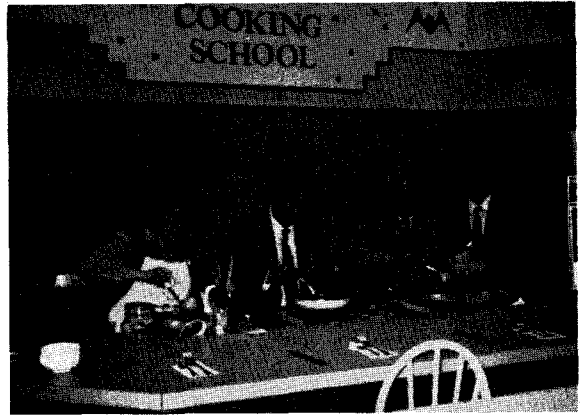
Kleinfeld농장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50만수 계열농장중 3만5천수 규모계사가 6동(2단계이지×양면×4줄)있는데 관리인은 1명이 있었다. 집란을 위해 반나절을 임시고용인을 두고있다. 계사는 고상식으로 급이, 급수, 집난 등 완전자동 컴퓨터조절장치가 되어있었으며 케이지는 12피트×12피트에 8마리씩 수용되어 있다.

육성농장에서 16주령까지 키운 육성계를 산란전에 이농장으로 이동시키는데 모든 백신프로그램은 육성시 완료하고 산란계사에 편입되면 도태시까지 백신작업을 하지않는다.

산란성적은 60주령 까지 215~220개 이다. 계분은 근



▲인디애나주 농민방송국기자와 인터뷰하는 계정성부장 현지 방송담당자들은 시찰단 방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슈퍼마켓 부설 요리학교에서 오믈렛실습을 하고 있다. 요리학교에서는 주부를 위한 요리강습, 재료, 기구 판매 등 소비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처 농장에 비료로 공급하는데 별도로 처리를 하지않고 공급한다.

우리나라 같이 생란이 그대로 유통되는 예는 없으며 반드시 GP처리를 거쳐야 하며 GP처리시 난각의 얇은 것을 보강하고 장기간 보관, 원거리 수송 등 필요에 의해 미네랄코팅을 실시하기도 한다.

계란검사는 주(州)경계를 벗어나 판매하게 되면 연방검사원 검사를 받으나 주내에 판매하는 경우 또는 GP공장에 자체할란시설이 없으면 연방검사원 검사가 불필요하고 주검사원이 검사한다. 주정부검사도 소비자불만이 없으면 순회방문지도로 끝난다.

GP기계 처리시 불합격율은 0.5~1.5%정도이며 별도 액란공장을 거쳐 액란, 난분, 마요네즈 등 가공해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생산과잉 및 소비부진 등으로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서 계란생산의 75% 정도를 점하고 있으나 점차 중부지역으로 생산지가 이동 하고 있는 추세이다.

### 철저한 수익자부담에 의해 운영되는 양계협회

태평양지역 양계협회(PePa)는 1924년도에 창립했으며 서부태평양지역 11개주생산자 100여 농가가(계열주체 포함) 소속되어 있다. 연간 예산은 약\$50만(약4억원)이며 회원회비가 1/3 나머지 2/3는 박람회개회등 자체 사업으로 조달하고 있다. 산란계 약3천수를 소유한 산란계농장외에 브로일러, 칠면조, 오리사육농가 등이 회원으로 속해있다.

각 계종별 분과위원회와 22인의 이사회로 구성되며 특정분과별 회합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투표로 최종의사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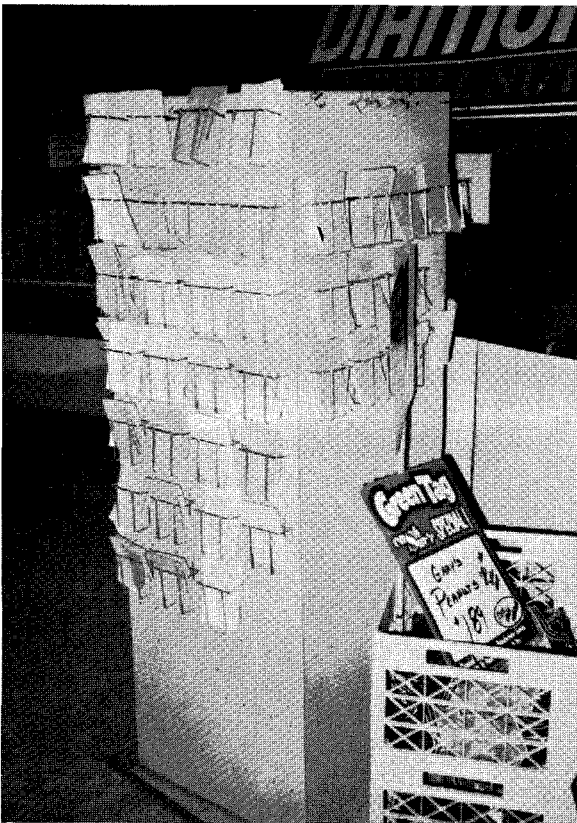
협회는 생산자들을 위해 생산자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금박람회와 각종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경영지도업무를 담당한다. 주정부·연방정부에 대변인을 보내 산업의 이익을 위해 대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보험업무도 실시한다. 모든 자금은 철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낸다.

협회는 산업의 장기적발전을 위해 농업(가금학)전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등의 가금연구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대소비자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계란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영양과다의 소비자와 문제되지 않는 일반소비자 대상을 구분)을 운영하고 회원을 위한 친목행사도 개최하게 된다.

### 소비자 편의위주로 계란생산·유통

유통상점에서는 소비자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그

▼수퍼마켓 매장에 소비자를 위한 요리방법 리프렛이 준비되어 있다.



▲소비자 구매의욕을 높이는 계란진열대

들의 요구에 부응해 소비자 편의위주로 매장을 설치하고 있다. 예로 가장 좋은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매장에 무료 요리책자를 전시해 자유로 가져가게 배려하고 있으며 부설 요리학교(Cooking School)를 만들어 주부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습도 하고 요리기구, 요리재료 등을 싸게 판매하고 있다.

식품비중 외식비용이 43%이상으로 미국국민 1인이 하루 1개 이상을 외식으로 때우며 계란소비도 정통적인 가족소비 보다는 요식업 위주로 소비되는 추세로 즉석식품(fast food)메뉴개발, 학교호텔·병원 등 단체급식과 휴일소비용·직장인·간식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식품학자는 밝히고 있다.

계란은 값싸고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요리준비가 쉽고, 식품중 보존기간이 길고 주원료·부원료가 이용하기 쉬워 메뉴다양화 가능성이 높아 요식업체에서 사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사에서조차 계란을 위주로 한 아침식사를 개발해 좋은 소비자반응을 얻고있다한다.

최근 계란소비에 콜레스테롤 문제와 살모넬라에 대한 문제가 야기돼 업계에서는 심각한 골치거리이며 전미국을 대상으로 미계란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홍보를 펴고있으며 지역(주)별 문제는 유관대학 등 지역 연구기관에 용역을 통해 산학협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소비자교육 소비촉진 위한 자조금제도 실시

1951년 국민 1인당 계란소비 393개에서 1974년도 269개까지 줄자 양계생산자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통감하

고 해결책을 찾자 노력하였다. 결국 계란의 수요개발을 위한 소비촉진활동, 연구조사사업 전개, 소비자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이의 자금조성을 위한 생산자 청원입법으로 수혜자가 공동부담하는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예산차원지원도 한계가 있고 수익자인 양계인이 자기의업의 순수한이익을 위하여만 쓰여질 자금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 취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법은 1974년 제정돼 1976년부터 발효가 되었다.

이 기금은 조성은 GP센타가 법적징수의무자로 3천수 이상 사육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360개들이 상자당 5센트를 계란판매시 자동징수하며 기금의 관리는 미계란협회(American Egg Board: AEB)가 맡게된다. 그러나 생산자가 원치않는 경우 법적기간내(90일)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1986년도에 2천4백여명의 양계농가가 참여해 7백만불을 모금해서 조사연구사업(심장병·콜레스테롤 등),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홍보자료제작, 관련 기관 협조기금 부담, AEB의 운영자금등으로 쓰여졌으며 정부는 법에 의해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타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모금돼 사업상 애로가 많은데다 계속적인 소비감소로 인한 생산자 반환청구가 늘고있어(86년도 약35%)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 전국단위(연방) 활동과 주단위활동, 기업에 의한 활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소비자요구에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로 준비된 닭고기 판매장

데 전자는 계란의 일반수요 창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교육이고 후자는 기업의 자사상표에 대한 선전이 되고 있다.

### 계란 살모넬라문제와 콜레스테롤 문제로 소비문화 추세

이 기금중 일부와 계란생산자연합회, 캐나다계란유통기구 등에서 분담지원해 운영되는 계란영양센터는(Egg Nutrition Center) 대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영양학·의학적인 자료수집 및 소비자반응 조사, 계란의 장점 및 과학적이고 올바른 소비자정보 홍보, 계란에 대한 불리한 기사, 보도에 대한 즉각 항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영양학자, 교수, 의사 등 전문위원들과 정기적모임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해 토론하거나 또는 전문가의견을 들어 그릇된 편견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올바른 지식을 소비자에게 홍보를 실시한다.

자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소비감소가 70년대 후반부터 둔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1985년 부터 콜레스테롤과 살모넬라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면서 소비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교육 및 소비 촉진활동은 소비증가 보다 계란 소비의 감소를 둔화시키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양계인들은 농장내에서 기술적, 경제적이전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장밖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소비에 대한 문제는 양계인 스스로 각출한 자조금을 이용해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이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인 권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3천불 소득시대를 맞는 우리도 현실에 적응키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자구노력의 경험을 거울삼아 국내의 실정에 맞는 활발한 활동전개가 요구된다. 계란소비 홍보사업의 적극추진, 새로운 조리법 개발보급·각종 정보수집연구 등을 통한 대소비자교육 강화, 소비자들을 인식한 생산품의 상품성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생산자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생산자조직의 단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기록:남두희)